

“오지주민 건강관리에



● 보건의료 취약지구가 많다는 점에 착안

『주민건강검진사업은 어느 지부나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경남지부 관내 지역의 특색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이 동서로 양분되어 있어 지역주민 검진사업이 어렵다는 점이었죠. 이것은 보건의료 취약지구가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런 지역적 상황은 오지주민 대부분이 자신의 건강을 위해 혈압이라도 한번 제어 볼 수 있는 계기가 없었을 것이라는 판단을 받게 했습니다. 이점에 착안한 것이 바로 보건진료소와 협동으로 실시하는 주민건강검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실현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경남지부 윤청하 사업과장은 본사업을 발상하게 된 동기를 이렇게 설명한다.

● 보건진료소장의 헌신적 도움이 성공적 결과를 ...

이 사업이 현실화되기까지는 많은 노력과 주위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일정기간동

첫발을 떼어 놓았습니다'

건협 경남지부 주민건강검사사업의 현장을 찾아서

健協경남지부는 관내 지역주민건강검사사업을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실시했다. 경남지역의 특수성을 감안 특히 건강검사의 계기가 전혀 없었던 오지 주민에게 자신의 건강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 이번 사업의 주 목적이었다.

이 검사사업의 특색이었던 것은 경남지부관내 도·시·군의 협조하에 각 지역 보건진료소와 합동으로 실시해서 지역주민 건강관리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점이다. 109개 진료소에서 2,300여명에 대한 건강종합검사를 실시해 주민과 진료소장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던 이번 사업의 모든 것을 취재해 봤다.

안 이동검진을 실시하면서 건강상담과 검진을 통해 주민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는 것을 관계부처와 몇달에 걸쳐 협의를 했었고, 시행계획이 구체적으로 선 이후에는 도의 후원을 받아 시·군을 통해 일선보건진료소에 협조공문이 발송되었죠. 물론 저희 지부에서도 보건진료소에 협조공문을 보냈고요.』라며 윤과장은 도·시·군 담당자들의 도움이 실로 컸음을 강조한다.

그는 또,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것은 바로 일선 보건진료소장들의 헌신적 도움이었습니다. 자신이 맡고 있는 지역의 주민 건강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진행계획부터 계몽까지 정말 적극적이었죠.』라며 그들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인다.

● 고혈압, 전체검사자의 23.0%의 유소견을 나타내

사업시행이 구체화되고 관내의 매스콴을 통해 홍보, 계몽이 차질없이 진행되면서 상반기 검진사업이 지난 1월에 현지홍보 및 수검신청을 시작으로 하여 3월말 검사



▲이제 농어촌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높아졌고, 그만큼 건강검진에의 참여도도 향상되고 있다.



▲지역적 상황 때문에 보건의로 취약지구가 많을 것이라는 데서 이번사업을 발상해낸 윤청하과장.

결과가 통보되기까지 진행되었다.

『자궁암, 고혈압, 당뇨병, 신장, 간장, 심장 질환, 췌장질환, 기생충, 성병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사업의 건강상담과 검사 결과 판독은 경남지부 황문각 부속의원장을 비롯해, 부산의대 김순호교수, 이선경교수, 인제의대 최하진학장, 김진우 방사선 전문의등 분야별 전문가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253개 보건진료소 중 109개소의 2,318명에 대한 검사를 이번에 실시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뜻밖에 많은 비율의 유소견자를 발견했습니다. 특히 고혈압의 경우 전체검사자의 23.0%, 간기능이상인 21.4%의 유소견율이 나왔습니다. 처음엔 이런 검사사업을 탐탁치 않게 생각했던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 사후관리가 더 중요했다

그러나, 건협 경남지부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즉 지역주민의 정확한 건강상태 파악 및 관리를 위해 사후관리에 더더욱 철저를 기했다.

『결과서가 각 개인에게 개별통지되긴 했습니다만 주민들 자신이 이후에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잘 몰라 모처럼 받게 된 자신의 검사가 소용없는 일이 될 것 같아 해당지역 보건진료소장님께 종합 집계표를 전달했습니다. 수검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유소견자에 대한 상담지도, 그리고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의 병원 알선등을 원활히 이루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결과처리에 대한 적극성은 주민들의 보건교육차원에서도 좋은 결과를 낳았고, 자신이나 가족의 건강 혹은 지역의 건강관리에 새로운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결과가 되었음을 실제로 보건진료소장과 주민들의 입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이번 사업의 최초 지역이었던 양산군 원동면 화제리 화제보건진료소의 김덕이스소장은,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정말 높아졌습니다. 불과 몇년 전만 해도 하다못해 간염검사 한번 하려해도 애를 먹었었죠. 농촌의 시간적, 경제적 실상이 많이 작용했겠지만 그보다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다른 것들에 비해 낮았던 것이 큰 이유였죠.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문화시설이 일반화되면서 마스크를 통해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계몽되면서 검사나 접종이, 예년에 비해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죠. 특히 이번에 건협과 함께 실시한 건강검사는 자신들의 건강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를 주민들에게 주었던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그녀는 오랫동안 주민건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요즘처럼 뭔가 힘이 솟는 듯한 느낌을 받은 것은 처음이라며 밝게 웃는다.

● 간디스토마 퇴치도 중요문제로 대두

낙동강 하구 근처 산간지역에 위치한 화제리는 인구 1,900명 내외의 비교적 풍요로운 농촌으로 특히 간디스토마의 감염율이 높고 이로 인한 간경변증, 간암에 의한 사망율이 높아 건협의 기생충검사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곳이다.

『디스토마 퇴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이곳 실정이지요. 그리고 이번 검사를 통해 간기능 외에도 동맥경화, 고혈압 등 성인성 질환이 많이 발견되어 이들에 대한 정기 상담과 관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라는 김소장은 경남간호전문대를 나와 진료소가 설치되던 초창기인 '84년부터 보건진료사업에 종사해온 베테랑이다.



▲간디스토마의 퇴치가 아직도 건강관리에 있어 중요한 관건인 것이 우리 농어촌의 현실



▲지역주민 수준에 맞는 적절한 보건교육이 정착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김덕이 화제 보건진료 소장

●보건교육 위한 자료확보가 아쉬운 오지의 상황

김소장은 이렇게 높아진 지역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소극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을 위해 보건교육이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직도 보건소를 기피하고 기생충약을 타기위해 검사를 받는 것에 대해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지역주민에 맞는 적절한 보건교육이 실시되지 않는데서 오는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 오지의 보건진료소에서는 전단 한장 건강관련 책자 몇권이 말할 수 없이 소중한 것입니다. 슬라이드, 비디오투도 현 상황에 맞는 새로운 것들이 보급되어야 겠구요. 이런 점에서 건협이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이번 주민건강검사사업을 계기로 건협 경남지부는 오지주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한다.

그녀는 또, 『건협이 이러한 이동 검진사업이 활성화되어 어느 오지의 주민이든 1년에 최소한 1번씩은 받아볼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편 건협 경남지부 윤청하 과장은, 『이번사업을 실시하는 동안 많은 것들을 느꼈습니다. 즉, 보건계몽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감했고, 저희들이 하는일에 대한 사명감과 긍지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보건진료소협동사업을 더욱 활성화 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며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여주었다.

시원한 강바람이 불어오는 곳에서, 기자는 살아있는 국민건강사업을 보는 것같이 기쁘기 한량없음을 느꼈고, 우리나라도 선진국 못지않은 건강관리시스템의 정착이 멀지 않았음을 생각해보았다. <마희연 씀>